

전남도 “내년 전국체전, 국민감동체전으로”

목포역 광장서 D-300일 기념행사...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도 문화행사·관광 콘텐츠 구축 등 범업 조성하고 성공 개최 다짐

전남도가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사전 범업 조성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의원, 도민 등 1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자현악 여성 3인조 일렉트릭의 경쾌한 연주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을 주제로 한 목포시합창단의 힘찬 공연이 펼쳐진 후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가 함께 양 대회 기를 들고 입장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어 김영록 지사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 축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초·중·대학을 전남에서 나온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의 체전 성공기원 영상 메시지, 전국체전 홍보 동영상 상영, 대회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감동체전을 목표로 확대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 전남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올림픽에 버금가는

멋진 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공식 마스코트인 ‘생명이’와 ‘으뜸이’를 형상화한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김영록 지사와 내빈의 터치버튼 작동에 의해 가림막이 이탈하면서 처음 공개돼 내년 개최가 전념을 널리 각인시키고 성공 개최를 열망하는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카운트다운 시계탑은 목포역 광장에 대회 종료 시까지 비치돼 전국에서 목포를 찾는 방문객과 도민에게 내년 전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후 문화행사엔 목포 출신 국악인 박애리와 배우자인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과 안무로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열원을 뜨겁게 달궜다. 또 체전 마스코트 포토존과 현장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이벤트가 구성돼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도는 2023년 초부터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모집, 성화 채화·봉송 구성 등 대회 운영준



15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D-300일 기념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내빈들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카운트다운 시계탑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비, 숙박·교통·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손님맞이 준비, 체전과 함께 즐길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린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에 분산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빙상 위 '동성 커플'

캐나다, 피겨 혼성종목 출전 허용

혼성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페어, 아이스댄스에서 동성 커플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연맹(스케이팅캐나다)은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연맹 규정 중 '팀'의 정의를 '남녀 선수'가 아닌 '두 명의 선수'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연맹이 주관하는 캐나다 자국 대회 페어, 아이스댄스는 성별과 관련 없이 2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우리는 성 정체성과 관련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팀'을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으로 정의하는 건 연맹의 비전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연맹은 지난 7월 집행위원회에서 연맹 산하 EDIA(평등과 다양성, 포용과 소통) 위원회의 관련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바뀐 규정은 9월에 열린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연맹은 아울러 '앞으로 채점표에 쓰이는 단어도 바뀌게 된다'며 '남성·여성의 표기는 스케이팅 선수 A, B 혹은 들어 올리는 선수(lifting partner)-들리는 선수(lifted partner) 등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규정은 캐나다 자국 대회에만 적용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는 여전히 혼성팀만 페어, 아이스댄스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KIA 김선빈의 후배 사랑...올해도 모교 화순중에 야구용품 기부

“여력 되는 한 계속 후원할 것”

“여력이 되는 한 계속 후배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이 모교 화순중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기부했다. 김선빈은 최근 화순중을 찾아 배트와 배팅볼 기계 등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

김선빈에게 '모교 방문'은 비시즌 새로운 루틴이 됐다.

김선빈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화순중을 찾아 야구공과 배트 등 2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후배들에게 선물로 안겨줬다.

또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 1000만 타달성 기념 위기가정 돕기 1000만원 기부 등 나눔을 이어온 김선빈은 올 시즌에는 팬들에게 '한타'를 쓰기도 했다.

김선빈은 지난 10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 1000잔의 커피를 대접했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팬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주장'으로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커피를 준비한 것이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양준혁야구재단이 개최한 제10회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위해 아들 서준근과 고척돔을 찾았고, 14일에는 이이리, 김도



영 등과 북구 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 4000kg(20kg 200포대)을 전달했다.

그리고 모교를 찾아 야구 꿈나무를 위한 나눔도 잊지 않았다.

김선빈은 “후배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매년 나눔을 하면서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됐다. 나눔을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받는 기분이다”며 “자선 행사나 나눔 활동 등을 하면 아들이 더 좋아한다. 아빠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력이 되는 한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눔 활동을 펼친 김선빈의 시선은 이제 2023년으로 향한다.

김선빈은 올 시즌 선수단 투표를 통해 '주장'이

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40경기에 나와 그라운드를 지킨 그는 4년 만의 포스트 시즌도 이끌면서 의미 있는 2022시즌을 보냈다.

내년 시즌에도 김선빈은 팀의 베테랑이자 주축 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쉽게 한 경기에서 끝나버린 '가을잔치'를 더 길게 즐기고 싶은 것도 김선빈의 바람이다.

김선빈은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보낸 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다”며 “앞서 제주도에서 개인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광주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될 것 같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겨울 잘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4일 염주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광주시 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가 끝난 뒤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화정초 유종열·수창초 류창희 '최우수감독상'

광주 야구소프트볼인 행사

광주야구인들이 '2022년 광주시 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를 갖고 한 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지난 14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를 갖고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화정초 유종열 감독과 수창초 류창희 감독이 각각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화정초는 제18회 흥타령기(회장배) 전국초등 학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수창초는 U-12 전국소년체전야구대회 금강상 리그 정상에 올랐다. 대회 우승의 주역인 화정초 신정윤과 수창초 김동혁은 나란히 최우수선수 영예를 안았다.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을 이끈 총장 BC 나길남 감독과 제1회 백호기 전국중학야구대회 태기왕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동성중의 강대성 감독은 우수감독상을 받았다.

제77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일군 송원대 고천주 감독도 우수감독으로 선정됐다.

준우승에 역할을 한 총장BC 이윤우, 동성중 허지용, 송원대 정현수는 우수선수로 단상에 올랐다.

총장BC 김성준(26타수 18안타-타율 0.692)과 수창초 노찬민(33타수 21안타-타율 0.636)은 6할이 넘는 타율을 찍으면서 최우수타격상 주인공이 됐다.

동성중 이태훈과 수창초 조성찬은 각각 타율 0.581(31타수 18안타)과 0.578(45타수 26안타)을 기록해 우수타격상을 받았다.

올 시즌 2022 U-15 전국소년체전야구대회에서 사이클링히트를 장식한 진흥중 임서진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또 나진복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은 감사패, 박승진 대성초 학부모회장은 감사패가 돌아갔다. 정문진 심판위원은 최우수심판으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목마른 첫승'...인삼공사에 져 14연패

광주 AI페퍼스가 KGC인삼공사에 첫아웃 패배를 당했다.

페퍼스는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 KGC인삼공사전에서 0-3(22-25, 21-25, 12-25)으로 무릎을 꿇었다.

페퍼스는 연패를 14로 늘렸다.

인삼공사는 페퍼스의 호적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근 4연패 중인데다 지난 11월 6일 폴

셋트 점전을 벌이면서 페퍼스에 승점(1점)을 안겨준 팀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1세트는 범실에서 승부가 갈렸다. 페퍼스는 5개, 인삼공사는 2개였다. 범실 갯수로 3개차이지만, 페퍼스는 범실에 올랐다.

9-7로 초반 리드를 잡았으나 인삼공사 이소영에게 오픈공격을 허용한 뒤 세터 이고은이 오버넷 범실로 동점을 내주고 고전했다. 막판 수비 집중

력이 살아나면서 21-23까지 추격했으나 문슬기의 서브가 아웃돼 결정적인 추격 기회를 놓치고 1세트를 내줬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도 21-21으로 따라붙었지만 나리 리드의 오픈 공격이 엘리자베트의 블로킹에 막히고 박은서의 오픈 공격까지 코트를 벗어나 반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페퍼스는 3세트에서 12-25로 무기력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리드 13점, 이한비 11점, 박은서가 9점을 따냈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3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4관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5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6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9관	아바타: 물의 길, 압구정
7관 씨네키움	올빼미
8관 씨네키움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압구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2 광주국악상설공연(12월)
 일시 : 2022-12-01(목) ~ 2022-12-22(목)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제133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일시 : 2022-12-21(수) ~ 2022-12-25(일)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2
 문의 : 062-522-8716